

아버지와 나 시리즈 3 - 예배, 설레이는 만남

<차례>

Chapter 1 :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Chapter 2 :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Chapter 3 :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Chapter 4 :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 ‘아버지와 나’ 시리즈를 발간하며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비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12가지 주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성령님 - 살리시는 영

예수님 - 구원의 이름

사탄의 영적전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기도 - 우리의 살 길

교회 - 세상의 소망

리더십 -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예배 - 설레이는 만남

선교 - 존재이유

사역 - 인생의 행복

성경 - 내 길의 빛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나의 동역자요, 동지요, 친구입니다.

나의 꿈, 그대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예배 - 설레이는 만남~♪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 주여
주는 기록하시니이다 (롬 8:2)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새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그대를 찾으십니다.

▣ 다음 글을 함께 읽읍시다. _____

방송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방송국에서 하던 '누가 누가 잘하나'라는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다. TV방송국에 처음 들어가서 신기한 것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을 직접 보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린 마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러한 연예인들에 대한 나의 마음엔 그들이 동경의 대상이었다. 이유도 모르고 그저 좋아했던 시절! 하지만 이 마음은 어릴 때나 청소년 시절만은 아니다. 좀 더 커서는 어떤 연극배우가 너무 좋아서 모든 관심을 그에게만 쏟았던 기억도 있다.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운동선수... 소위 '스타'라고 부르는 그들을 왜 좋아했을까? 물론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갈급해 하는 인간의 마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고백할 수 있었다.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함께 나누시다

-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때의 기분을 나누어 보세요.
- 좋아하던 사람 때문에 자꾸만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설레여서 잠을 못 이뤘던 때가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Chapter 1 -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말씀읽기

창세기 3장 8-10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9절)

2. 아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0절)

나눔시다

- 위의 말씀을 읽고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 그대가 잘못을 하고 나서 회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으면 나누어 보세요.

♣ 말씀읽기 2

요한복음 4장 23-24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 참고

'예배'(Worship)라는 말의 뜻

-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맞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경배)라고 번역되는 구약과 신약의 단어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번역되는 구약과 신약의 단어는 예배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눔시다

- ‘예배’란 말을 들을 때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나 느낌을 말해보세요.
-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이를테면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구제를 많이 하는 자 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 묵상하기 2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

📖 참고

‘신령과 진정으로’(in spirit and in truth)와 ‘예수’

23절과 24절에 각각 한번씩 나옵니다. 쉽게 번역하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또는 ‘영과 진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24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눈에 보이는 장소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 진리는 곧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요 14:6)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21절)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말씀(22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눔시다

- 잊혀지지 않는 예배의 경험을 나누어보세요. 주일예배도 좋구요. 주일예배 외에도 좋습니다. 또는 최근의 것이면 더 좋습니다.
- 그 예배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나누어 보세요. 기쁨이 넘쳤던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 안타깝게 느껴지던가, 어느 사람 또는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라던가 등등...

☞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4:23)

내가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와!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일만 되면 이렇게 교회로 몰려드는거지. 이렇게 바쁜 세상에 주차장도 복잡한데...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놀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오히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예배 중에 느껴지는 감동, 기도 중에 전해오는 가슴저리는 느낌, 설레이는 마음, 처음엔 초신자인 나에게서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에게만 '인격'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 자신을 닮은, '인격체'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교제하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 우리 순원 기도제목 >

☞ Chapter 2 -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사귀어 가면 조금씩 그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러하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하나님과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앎은 지식적인 앎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귀어 서로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앎은 그 상대방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귀음을 통해 그분을 닮아갑니다.

♣ 말씀읽기

호세아 6장 1-6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3절)

2. 결국 여호와라는 어떤 분이라는 것일까요? (3절)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 참고

‘알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앎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앎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했을 경우애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고 했을 때 ‘안다’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시다

◦ 하나님을 지식적인 앎이 아닌 경험하여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말씀읽기 2

시편 18편 1-2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을 겪은 후에 지었습니까? (부제를 읽어보세요)

2.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께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1-2절) 9가지를 다 말해보세요.

📖 참고

‘다윗의 직업’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하는 일은 아실 것입니다. 군인은 생명의 위협이 많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순간순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눔시다

-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때 목사님의 긴 말씀이 지루하고 또 눈꺼풀은 왜 그리 무거웠는지요.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와중에도 엉덩이는 또 왜 그리 아팠는지요... 그 후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또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은 영...” 이라며 얼마나 뻗뻗한 고개를 쳐들며 교만하게 예배에 참여했는지.

시간이 흐르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은 예배가 점점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다가오는 예배가 지루함보다는 하나님 알아가는 행복감으로 분위기에

☞ Chapter 3 -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뭐든지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예배라는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러한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내는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 말씀읽기 1

누가복음 7장 36-50절을 함께 읽읍시다.

☞ 묵상하기

1.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36-39절)

2.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신 후에도 함께 앉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0-50절)

☞ 참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 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눔시다

-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어려웠던 순간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데도 말해보세요.

- 시편 96편 8절을 읽고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세요.
- 요즈음 당신의 모습은 여인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 말씀읽기 2

이사야 6장과 로마서 12장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 묵상하기

1.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물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2. 그 제사의 예물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 참고

‘가치관’

아무리 바쁘고 바쁜 상황이라도 인간은 자기가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고등학생들을 보면 바쁜 것 같고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데는 꼭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거나 예배 시간의 길이에 대하여 인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고등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의 비유 중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를 말해 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다시 돌아간 이유도 자기의 재물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가치관은 무엇이 소중한지 알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나눔시다

- 자신에게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포기해도 되는 것을 하나씩 지워보세요. 무엇이 남습니까?
- 그대에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남은 그것입니까?
- 그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된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영적인 깊이는 깊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 하셨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의 고민(영의 생각와 육의 생각) 그리고 저의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인간관계와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평안을 느낄 때, 왜? 꼭 예배인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더군요.

저는 1년 전만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로 예배드리러 다니는 사람들도 나와 다르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보다 더 여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거죠.

하지만 지금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의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야! 일요일 날 한번쯤 놀러가도 되는 것 아니야?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일요일 날 교회에 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희들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봐! 예배를 빼먹게 되나...

친구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감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안드려도 그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제 친구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 우리 순원 기도제목 >

☞ Chapter 4 -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란 곧 삶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로 당신의 삶이 예배이며 예배가 곧 당신의 삶입니다.

♣ 말씀읽기 1

창세기 5장 21-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함께 읽읍시다.

☞ 묵상하기

1. 에녹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2. 옮기우기 전의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참고

‘주관자’

모든 일과 모든 사물에는 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라고도(authority) 부르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권세 또는 주권을 정확히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그를 예배하는 자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도 여호와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나눔시다

- 지위가 높은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누어 보세요.
-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어려우시겠다고 생각되는 때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가는 술자리 또는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요구할 때 등등...

♣ 말씀읽기 2

민수기 12장 3절과 사도행전 13장 22-23절을 읽읍시다.

☞ 묵상하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인정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민수기)

나눔시다

-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인정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일, 지위, 능력 등으로...

☞ 참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케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 삶의 동반자

하나님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신지를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의 인생의 길을 저 혼자서 걸었습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저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힘들어 질 때
 당신께서는 저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며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땐 당신이 어떤 분이신 줄 몰랐기에 다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의 뒤를 묵묵히 따라와 주셨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파 움추려 있을 때 저를 꼭 껴안아
 당신 품에 품으시며 삶의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옆에서 당신의 귀하신 삶과 말씀을 들려주시며
 저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저의 약한 본성과 사랑 없음을 한탄하며 가슴 찢을 때

